

삶의 현장이 공연·전시장으로 '활기'

광산구, 부르면 달려가는 '문화예술 부르미' 시범 운영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하며 일상 활력·상권 활성화 도모

광주 광산구가 삶의 현장, 골목상권, 문화예술을 연결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도가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는 '광산 문화예술 부르미' (가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가 올해 초 수립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지역 예술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예술 수요와 공급을 1대1로 연결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상가, 민간 시설 어디든 요청하면 원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점 공간에서 공연·전시 개최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문화예술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민간 유휴공간을 지역예술인의 활동 무대로 제공

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접근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관내 주요 상권과 규모가 있는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예술단체나 예술인을 섭외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공연·전시에도 필요한 장비 지원, 기반 시설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처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예술인 또는 단체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 광산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광산 문화예술 부르미'다.

광산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 '풀'을 구성하고, 수요처를 모집하고 있다. 예술인 '풀'은 노래, 악기 연주를 비롯한 사진, 회화, 조각

등 모든 공연·전시 모든 분야다.

수요처는 10인 이상 관람객 동원이 가능한 식당, 카페 등 상가는 물론 민간 문화시설, 경로당, 사회 복지시설 등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광산구는 이달 중순까지 모집을 마치고, 수요처 공간 규모, 희망하는 분야 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예술인을 선정, 연결할 예정이다.

수요처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화 향유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하고, 단순히 공연·전시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장터, 전시와 관련한 도슨트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에는 성과를 평가해 확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 문화예술 부르미를 통해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해 코로나 19 엔데믹에 지친 시민의 심신을 달래고,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문화예술-경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매일 첫 손님 요금 모아 기부합니다”

개인택시 운행 박윤석 씨 운남동 돌봄이웃에 120만 원 기부

“운전대를 놓은 그날까지 매일 첫 손님이 낸 요금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자는 다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박윤석(61)씨의 뜻깊은 선행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1년여간 매일 모은 '첫 손님 수입'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첫 손님 수입'을 모아 기부한 박윤석씨.

박씨는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개인택시를 시작했다. 인생 2막, 그리고 그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다. '첫 손님 수입' 기부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뒤편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한 일이다.

박씨는 현금, 카드를 가리지 않고 매일 택시에 처음 탄 손님이 낸 요금을 차곡차곡 모았다. 그렇게 쌓인 120만 원을 들고 그가 찾아가는 곳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운남동의 행정복지센터다. 마을의 돌봄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하셨다.

박씨는 "택시 일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작은 약속, 그리고 실천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된

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기부금은 박씨의 뜻에 따라 투게터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운남동의 취약계층에 추척 위문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성영진 운남동장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정재봉 광산구의원, 용역관리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 촉구

서면심의로 형식적 처리 부실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분량동·사진)이 지난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관리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광산구가 지난 3년간 시행한 48억원 규모의 용역사업 403건에 대해 과제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반적인 운영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용역사업이 관계적·관성적 행정 맞춤형으로 진행돼 구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



정 의원은 또 "심의의결서를 살펴보다라든 사업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용역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전심의 제도인 '용역심의위원회' 조차도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서면심의를 진행한 31건도 모두 '탈락' 또는 '미흡' 사례조차 단 한건도 없이 전편일률적으로 '적정' 평가를 받았다"며 부실운영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심의의결서를 살펴보다라든 사업

단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민해 '가-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2개에서 많게는 9개가 되는 용역사업에 단 한 장만으로 기재하고, '원안가결'이라는 결과에 사인만 하는 형식이었다"며 "더 한심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전심의 시기가 절차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내부 공무원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한 탓에 정해진 금액에 짜 맞추는 원가계산서 산정으로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면도 있다"며 "용역관리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용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이 지난 14일 순천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명품30리길 조성'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명품30리길'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는 '민선 8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명품30리길 조성' 사업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공공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된 102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회원 도시의 건강 도시 정책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상이다. 사업의 구체성 및 지속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시민의 참여 정도, 부서 간 협업 정도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광산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명품 30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걷기 좋고, 찾고 싶은 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길을 걸으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도 마련

·운영했다.

이를 통해 '활동적인 걷기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걷기 실천율, 비만을 등과 같은 건강지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길을 만들기 위한 전 부서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더해져 결과물"이라며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길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명품30리길 조성사업은 송산근린공원에서 장복습지를 거쳐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약 12km(30리) 구간을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즐길거리 가득한 명품 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김명숙 광산구의원, '장애인주차과태료' 장애인복지재원으로 활용을

일자리·인권 보장·자립 지원 등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2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분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자체가 노인·아동·장애인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 항목에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했으며, 재원은 2억 원 이내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 재원 계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고 ▲장애인 의료·교육·문화예술 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지원 사업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했으며, 재원은 2억 원 이내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법적·의식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평등'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